



## 기획 + 안전체험관



### 전문가기고

- 04** 안전체험관, 색다른 콘텐츠를 입히자!  
이영주\_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 10** 실감형 콘텐츠를 접목한 전시공간디자인  
강경목\_ (주)시공테크 수석디자이너
- 12**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후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  
권설아\_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안전체험관 현황 인터뷰

- 14** 국내 최대 안전테마파크, 태백 '365세이프타운'  
김범진\_ 한국안전체험관 기획마케팅팀 팀장
- 18** 전국유일, 호우안전체험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황인\_ 광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관장
- 22** 대전시, 안전체험교육의 메카를 꿈꾸다!  
백병일\_ 대전시 안전정책과장

발행일 2023년 8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발행인 대전세종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  
042-530-3500  
www.dsi.re.kr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 Infographic



### 지역안전지수 통계

- 24** 한눈에 보는 지역안전지수  
지역의 안전을 가리키는 나침반  
지역안전지수가 궁금해요!
- 26** 한눈에 보는 지역안전지수  
대전광역시 교통사고의 최신 변화와 중점 대응 과제  
교통지역안전지수  
이준\_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위원

## DAJEON SAFETY NEWS



### Daejeon Safety News

**30** 대전시 안전 뉴스

### VIEW + 대전시 안전

- 36** 안전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 대전세종연구원
- 38** 안전신문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40** Safe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 안전체험관 색다른 콘텐츠를 입히자!

이영주\_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 전국의 안전체험관,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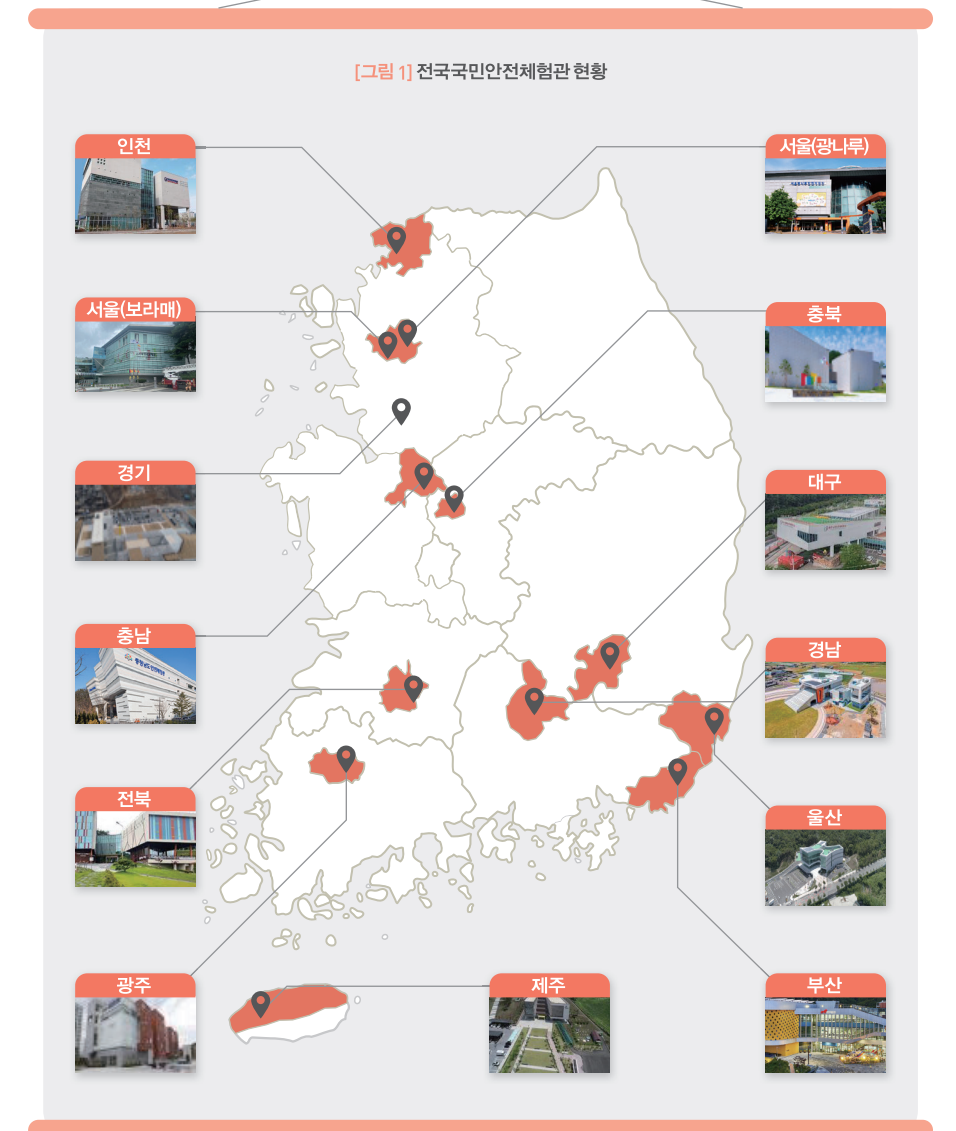
안전체험관을 건립 운영하는 목적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안전체험관이 서울 광나루역에 생긴 이후 현재 국내는 서울의 2개소를 비롯하여, 전국 각 시도별로 체험관이 건립되어 2023년 현재 13개소의 대형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 해 백만 명이상이 안전체험관에서 다양한 재난을 체험하고 교육받고 있다.

그간 안전체험관은 단순한 체험교육훈련시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교육의 중심으로, 체험중심 교육으로의 전환과 체험교육의 방향과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도 많다.

그래서 국내 안전체험관 도입이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안전체험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안전체험관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전국국민안전체험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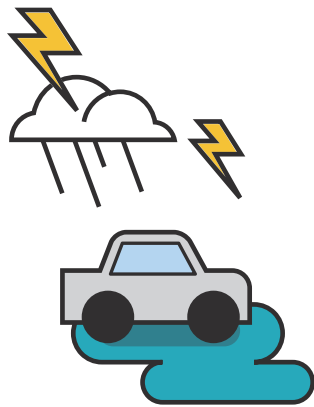


“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상황의 참혹함이나 위험성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훈련의 효과가 있다.  
”



[표 1] 전국국민안전체험관 현황

연번	지역	개관일	구분	위치	규모(부지면적/연면적)
1	서울 (광나루)	'03.3월	대형	서울 광진구 능동로 238	5,041㎡/5,444.5㎡ (지상 3층, 지하 1층)
2	서울 (보라매)	'10.5월	대형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33	8,020㎡/4,753㎡ (지상 3층, 지하 1층)
3	부산	'16.5월	대형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117	16,970㎡ / 6,337㎡ (지상 3층, 지하 1층)
4	대구	'08.12월	대형	대구 동구 팔공산로 1155	29,114㎡ / 6,610㎡ (지상 2층, 지하 1층) 2개동 + 야외시설
5	인천	'21.10월	특성화 (항공)	인천 서구 봉오재1로 120	9,784㎡ / 7,070㎡ (지상 4층, 지하 1층)
6	광주	'21.10월	대형	광주 북구 오치동 5	14,062㎡ / 7,806㎡ (지상 4층, 지하 1층)
7	울산	'18.9월	특성화 (원자력·화학)	울산 북구 산하중앙2로 87-33	17,013㎡ / 7,610㎡ (지상 3층, 지하 1층)
8	경기	'22.4월	대형	경기 오산시 북삼미로 22	16,745㎡ / 7,094㎡ (지상 1층, 지하 1층)
9	충북	'21.7월	중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241	25,623㎡ / 2,940㎡ (지상 2층)
10	충남	'16.3월	중형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267-17	9,237㎡ / 5,795㎡ (지상 4층, 지하 1층)
11	전북	'13.4월	대형	전북 임실군 호국로 1630	98,154㎡ / 6,600㎡ (지상 4층, 지하 1층)
12	경남	'21.6월	중형	경북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28	71,824㎡ / 2,962㎡+1,207㎡ (본관 2층, 별관 2개동)
13	제주	'20.11월	중형	제주 평화로 1885	46,218㎡ / 5,427㎡ (지상 3층, 지하 1층)



**국민안전체험관이란?**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시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배경**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1단계('17년~'21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안전체험관의 차별화 시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국내에는 안전교육은 체계화되지 못했고, 그나마 안전교육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 안전체험관 개관을 통해 재난안전 교육이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전교육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 이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등 체험교육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험관의 건립은 교육

의 질적 상향보다는 수요에 부응하는 양적 확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전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체험관을 시도별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체험관 각각의 독창성과 새로운 체험 콘텐츠의 적용보다는 기존의 체험시설의 구성과 내용, 공간구조, 운영방식 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종합 체험관의 경우 일부 특성화된 체험관도 있기는 하나, 특성화된 체험

[표 2] 종합체험관 주요 체험시설 비교

시설명	체험시설(주요시설)	
부산119 안전체험관	1층	리셉션실, 소방역사관, 전기안전체험관, 새싹안전마을
	2층	도시재난(다중이용업소화재 등), 자연재난(해양생존 및 지진해일대응 등), 생활안전(원전체험 등)
	3층	구급출동119, 화재대응, 4D영상관 ※ 야외시설: 키즈랜드, 119기념공원
울산 안전체험관	1층	오리엔테이션홀, 재난극복관, 어린이안전마을
	2층	교통안전교육관, 선박안전교육관, 화재안전교육관, 응급처치실습관
	3층	화학재난체험관, 원자력재난체험관, 지진재난체험관, 4D영상관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1관 지하 1층	라이드영상관
	1관 1층	오리엔테이션홀, 지하철체험장, 어린이전기안전
	1관 2층	소화기체험장, 응급처치, 지진체험, 생활안전(산불, 산악, 폭우)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2관	옥내소화전, 소화기, 전문심폐소생술, 주택농연탈출, 모노레일안전체험, 완강기체험
	1층	재난 아카이브, 어린이 안전마을
	2층	4D영상관, 도시철도사고 체험, 고층화재 체험
광나루 안전체험관	지하 1층	라이드영상관, 진로체험장, 응급처치 실습실
	1층	오리엔테이션홀, 선박체험장, 지진체험장, 태풍체험장
	2층	지하철안전체험장, 화재대피체험장, 소화기체험장, 응급처치 실습실, 승강기체험장, 방화셔터체험장
3층	3D영상관, 생활안전체험장, 건물탈출체험장, 문고답하기	





분야 또는 체험 콘텐츠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체험시설의 내용 및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표 2]는 국내 주요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을 비교한 내용으로, 주요 체험시설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새롭고 시의성 있는 재난체험 콘텐츠의 개발 및 적용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국민안전체험관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그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필수 체험시설을 정하고 있다. 또한 규모에 따라 지원예산이 차등화 되어 있어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필수체험시설을 반영하고 나면 사실상 다른 특화된 콘텐츠나 체험시설을 적용하기 어렵다. 각 시도별로 체험관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른 체험관과는 차별화된 체험과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 건립단계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비용과 필수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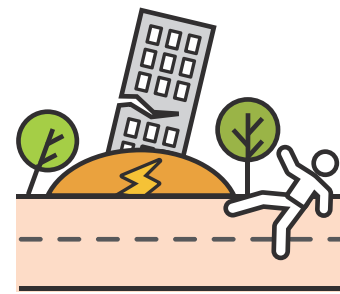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는 체험 콘텐츠가 흥미 위주로 구성되는 어트랙션(attraction)화 되거나 체험 장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흥미위주의 콘텐츠 구

성은 자칫 재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체험 장치 위주의 콘텐츠는 다양한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훈련과 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구나 다른 사람과의 활동 등을 통한 체험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나 대부분의 국내 안전체험관들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상황의 참혹함이나 위험성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훈련의 효과가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해병대박물관에는 한국전쟁 당시 겨울에 벌어진 장진호 전투를 재현하여 전시한 공간에 낮은 온도와 차가운 바람을 이용하여 관람객들이 전쟁 당시의 혹독한 추위를 체감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재난의 물리적 외력을 체험하는 콘텐츠였다면 앞으로는 재난의 경험과 스토리를 체험하고 공감하는 콘텐츠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재난을 겪은 당사자나 피해자의 얘기를 직접 듣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의 콘텐츠라면 비싸고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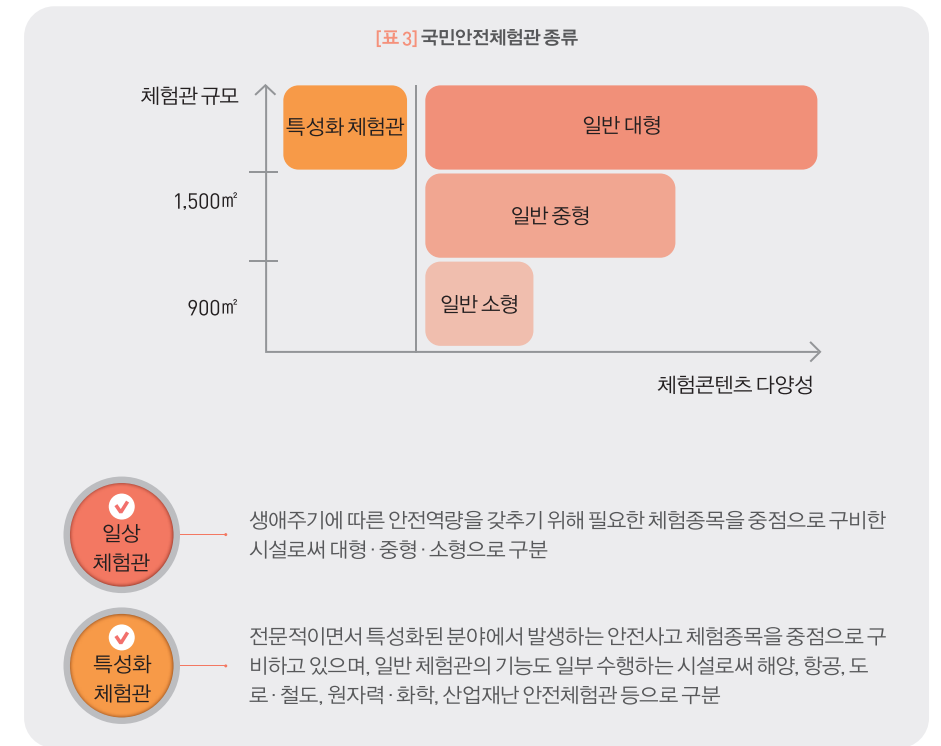
1 미국 버지니아 소재 해병대박물관 한국전쟁 전시관에 재현된 장진호 전투시 참호



지관리가 까다로운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까지는 시설 중심의 체험관이었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내용 중심의 체험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번 체험한 시설은 흥미를 잃게 되어 다시 체험관을 찾지 않게 되지만,

항상 새로운 학습거리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교육과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인력 및 교육훈련 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안전교육의 첫걸음, 종합체험관 필요**

향후 재난안전교육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체험교육대상 및 교육시수 증가, 교원을 비롯한 재난안전교육 의무대상자의 증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에 따

른 수요증가 뿐만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따른 자발적 교육 참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역별 재난특성 및 재난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난안전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안전체험관,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안전체험관의 미래는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화려한 볼거리와 체험 장치가 아니라 재난현장의 경험과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체험이 아닌 경험적 체험이 가능한 체험관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시설 중심의 체험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바꾸기 어렵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 시 이를 체

험 시설화하여 반영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에 대한 재난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단체로 한번씩 거쳐 가는 의무 교육 같은 체험교육이 아닌 오늘은 어떤 새로운 재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체험관하기를 기대해본다.



# 실감형 콘텐츠를 접목한 전시공간디자인

강경목\_주)시공테크수석디자이너

202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ICT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정보 부처간의 실감형 콘텐츠의 다양한 실효성을 제시하고 있다.

## 오감을 깨우는 실감형 콘텐츠

우리나라에서의 실감형 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ICT)인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융합된 단어로써 정보기술(I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확장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설명되기도 한다. 실감형 콘텐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몰입형 콘텐츠로 가상현실(VR),

증강/혼합현실(AR/MR), 홀로그램 융합,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에 속하고 지능형 콘텐츠로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자율창작 콘텐츠, 인포 콘텐츠, 개인화 및 상황인지 콘텐츠에 속하고 융복합 콘텐츠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공공 안전 및 복지 콘텐츠, 시뮬레이션 콘텐츠에 속하고 기타로 콘텐츠 유통서비스 플랫폼과 콘텐츠 품질과 신뢰할 수 있는 식별정보 생성 및 분류와 보호로 대표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실감형 콘텐츠 추진 주요 성과(2019~2020)

분류	세부내용
몰입형 콘텐츠	체험 가상현실(VR), 증강/혼합현실(AR/MR), 홀로그램 융합,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지능형 콘텐츠	교육 인터랙티브 콘텐츠, 자율창작 콘텐츠, 인포 콘텐츠, 개인화/상황인지 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공공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공공 안전/복지 콘텐츠, 시뮬레이션 콘텐츠
콘텐츠 유통	유통 콘텐츠 유통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품질/신뢰	기대 콘텐츠 식별정보 생성 및 분류, 보호

##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실감형 콘텐츠

우리나라 실감형 콘텐츠 산업 관련 재원 장비 및 단말 등의 지속적 경쟁 우위 유지와 실감형 콘텐츠 기반 신규시장 진입을 위하여 실감형 콘텐츠 저작기반 테스크 베드 인프라가 가장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실감형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전송기술을 확보하고, 관련기업이나 인력의 시장진입을 위한 연구, 장비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과 실감형 콘텐츠(VR 등)

지역 거점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고용창출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지역특화 산업 연계의 지역발전 모멘텀으로 신장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시장 규모에 비하여 인력 수급의 불일치, IT융합 인력 부족, 배출 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로 기업은 신규직원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 교육 기회가 적고, 교육시설 확충 및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해소가 필요한 부문이다.



## 실감형 콘텐츠 어떻게 활용할까?



1 장생포문화창고 실감형 콘텐츠 사진 2 국립춘천박물관 실감형 콘텐츠 사진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중 전시 공간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각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와 몰입형 콘텐츠의 주요 관점 평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실증적인 체험을 도입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공급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실감형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로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필요한 전시공간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둘째, ICT분야의 국내 기업들도 'K-Global' 브랜드로 통합하여 실시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기관간의 공유하고 MOU체계를 맺어 지역간의 문화기반시설의 편중심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실감형 콘텐츠는 단순히 오감각을 만족하는 것이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안전교육체험, 자연과학실험체험, 의학체험, 해양과학체험, 역사체험 등에 전시공간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관람객의 호응을 유발하고 극대화된 전시공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공간 재생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도 실감형 콘텐츠가 중심

에 서있다.

넷째, 각 사례를 보면 실감형 콘텐츠의 적용 대상물이 전시공간에 매우 빈도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 위치도 가장 중요한 전시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는 실감형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로 주춧돌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ICT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정보 부처간의 실감형 콘텐츠의 다양한 실효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등학교 및 학부생, 석·박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산업의 핵심 서비스인 XR 분야 전문 인력을 신시장·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업수요 연계 프로젝트 교육, 제작 역량 강화 교육, 해외선진기술 워크숍 등 2020년 총 50개 과정을 운영하고, 1,039명을 양성한다고 한다. 각 사례를 통해 문화기반시설 중 전시공간에서 실감형 콘텐츠의 적용 대상물을 통해 중요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ICT를 기반으로 하는 킬러 콘텐츠의 수준 높은 실감형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길 기대한다.

#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후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

권설아\_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은 기후 위기에 대해 미래세대들에게 위험에 대한 인식과 학습 도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은 학습의 참여자들이 기후변화의 현실적인 영향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으로, 체험적인 학습과 동기 부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후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의 가치와 효과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의 체험적 학습은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지식 습득, 감정적 공감, 실천적 행동 유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기후 위기에 따르는 극한 기후 및 재난과 관련한 가상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이 가능해진다.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에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가상 시뮬레이션과 복합적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제 상황과 위험 요소들을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은 실제 상황으로 전환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해를 준다(정희형, 2021).

둘째, 기후 위기에 대한 간접 경험에 따른

감정적 공감 및 공유를 할 수 있다.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에서는 참여자들이 기후 위기의 영향을 몸소 체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공포, 두려움, 놀람, 슬픔 등의 다양한 감정적인 경험은 체험관의 참여자들과 실제 기후 위기의 피해자들 사이에 감정적인 공감과 개인적인 연결을 형성하게 만들어, 참여자들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제공케 한다(최성우 외, 2020).

셋째, 적극적 행동 유도가 가능하다. 안전체험관은 참여자들에게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돕는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기후 위기 대응에 필

요한 실천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그 행동들이 미래 지속 가능성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Kim & Moon, 2022).

##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 체험관 구현과 운영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인터랙티브 체험,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현실적인 영향을 재현하고 참여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 학습적 요소가 필요하다.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은 참여자들이 적절한 교육적 가이드를 통해 기후 위기

에 대한 이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체험과정에서 주요 개념과 데이터를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삶과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참여형 디자인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이 설계되는 지역의 관계기관, 기업, 학교, 행정, 전문가, 시민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참여형 체험관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참여자 층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고석 외, 2019).

둘째, 교육적 효과의 측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안전체험관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참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학습하고, 어떤 행동 변화를 보였는지를 평가하여 체험관의 효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대응은 지자체, 정부, 기업,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체험관이 지속 가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설치된 지역사회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구현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체험관의 개선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내 안전체험관의 한계를 살펴보면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부족, 이용시간의 한계, 이용 참여자를 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 체험관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발전에 따라 체험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최신 정보와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배재현, 2020; 윤선화, 2012).

##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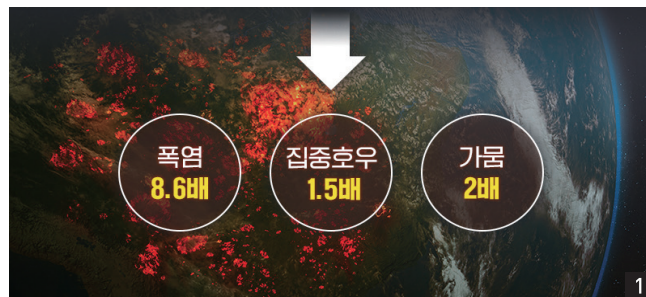
기후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은 많은 이점과 역할을 갖고 있다. 체험관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실과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참여자에게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은 참여자들에게 위험인식에 대한 공감을 통한 행동의 개선에 영향을 준다. 안전체험관을 통해 참여자들은 물, 식량, 에너지 등

의 자원이 어떻게 부족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의 영향을 몸소 체감하게 될 수 있다.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은 참여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 커뮤니티와 기업, 정부 단체 등에서 더 지속 가능한 실천과 정책 채택을 유도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 체험관은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후 위기 특화형 안전체험관을 구현할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 체험관들의 한계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석, 김유민, & 양지영. (2019). 송파 안전 체험교육관의 안전체험 프로그램 및 발전방향
- 배재현. 2020.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 윤선화. (2012). 어린이 화재안전교육의 효과
- 정희형. (2021). 초등학생의 안전체험관 활동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융합적

- 학습이 교육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최성우, 민용식, 김성일, & 최중근. (2020). 가상현실(VR/AR) 기술기반으로 군 안전 및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훈련장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Kim, Y. S., & Moon, K. (2022). 가상현실 기반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1 중기상이변에 따른 현상 (출처: LX인터내셔널) 2 과천국립과학관, 기후위기 기획전 (출처: 스카이드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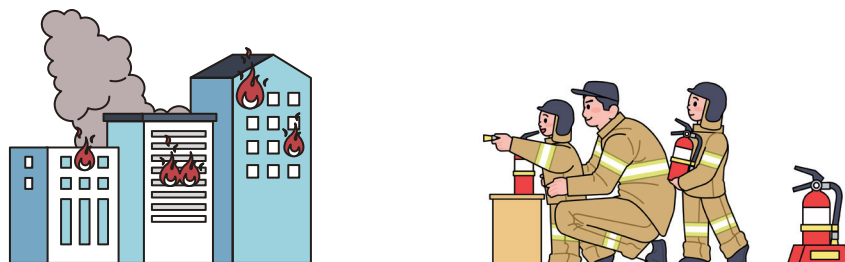




한국안전체험관  
기획마케팅팀 팀장  
**김범진**

## 국내 최대 안전테마파크, 태백 '365세이프타운'

산소도시 태백에는 세계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테마파크 '365세이프타운(한국안전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다. 2012년 문을 연 이곳은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과 놀이시설을 융합한 에듀테인먼트 공간이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안전이나 재난이라는 테마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고 몸이 기억하는 안전체험 테마파크라 할 수 있다. 365세이프타운은 부지면적 938,579㎡에 총사업비 2,100억원이 투자되었다. 재난안전, 생활안전 체험을 하는 종합안전체험관과 현직 소방관이 지도하는 소방안전체험관, 극기 체험을 하기 위한 챌린지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Q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나?

종합안전체험관은 지진, 산불, 풍수해, 설해, 대테러와 같은 5개의 메인 4D 체험관을 비롯하여 스마트CPR, 생활안전체험관, 노래방 항공기 탈출 체험관 등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방안전체험관의 경우 현직 소방학교 교관이 직접 완강기 탈출, 농연 탈출, 소화기 안전,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에 대한 내용을 체험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챌린지월드의 경우 케이블카와 트리트랙과 같은 극기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태백 여행의 시작, 365세이프타운'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한국안전체험관. 이곳은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기다 보면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 잊지 못할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백 여행의 출발지 365세이프타운을 강력 추천한다.



### Q 체험객들에게 태백사랑상품권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가?

2015년 교육부가 지정한 안전체험센터로 거듭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동안은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때문에 2020년부터 자유이용권(22,000원)을 구매하는 체험객에게 태백사랑상품권을 돌려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간 매출이 해마다 떨어졌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작년 기준, 12억 정도로 매출이 상승했다. 그 중에 태백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0억



1 365세이프타운 2 종합안전 체험관 설해 체험관 3 종합안전 체험관 산불체험관

정도다. 우리 지역에 10억 가량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안전체험관에 오신 체험객들이 태백사랑상품권 사용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추가 소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Q 최근 특별한 안전캠프를 열었다고 들었다. 소개를 해 주신다면?

7월에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했다.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협업사업으로 365세이프타운의 우수한 인프라와 소방관들의 전문성을 살려 진행했다. 안전과 캠핑 그리고 힐링을 테마로 한 캠프였다. 4개 분야, 9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종합





“ 그동안 지역과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아 365세이프타운을 찾은 체험객들 중에 태백시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2020년부터 기존의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과감하게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덕분일까, 지금은 체험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더불어 태백 여행의 출발지라는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 종합안전 체험관 체험모습 2 대테러체험관 3 종합안전 체험관 지진체험관

안전체험관의 체현, 챌린지월드 극기체험, 소방안전체험,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에서 생존수영, 화재 체험 등을 구성해 진행하였다.

**Q 체험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다? 어땠나?**

멀리 제주도에서 신청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에 왔던 친구들이 올해 또 찾아주었다. 내년엔 중학교 올라가면 못 온다고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프로그램 만족도도 높았다. 그런데 아이들만 오다 보니까 관리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라든가,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형 캠프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태백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다.

**Q 앞으로 365세이프타운을 어떻게 변화,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우리가 공익적인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면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야 한다. 교부세라도 일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 같다. 365세이프타운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그런 역할을



“ 365세이프타운은 접근성, 즉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비 포함 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와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중요성을 익히고 가면 좋을텐데 그럴 수 없어 아쉽다. 최근 태백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사업 덕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앞으로도 입소문이 나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길 바라고 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태백사랑상품권이 태백시에 유통되면서 지역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이다.

**Q 대전에 안전체험관 유치를 한다면 어떤 제언을 해 주시겠는가?**

중요한 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다.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가령 지진 체험 같은 경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워주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체험한 것이 도움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진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숙고 후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전국의 지진 안전 체험의 경우 하드웨어가 천편일률적이다. 모두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 빗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관장  
황인

# 전국유일, 호우안전체험 광주 '빗고을국민안전체험관'

수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현대사회.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빗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는 물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곳에서는 전국 최초로 호우안전체험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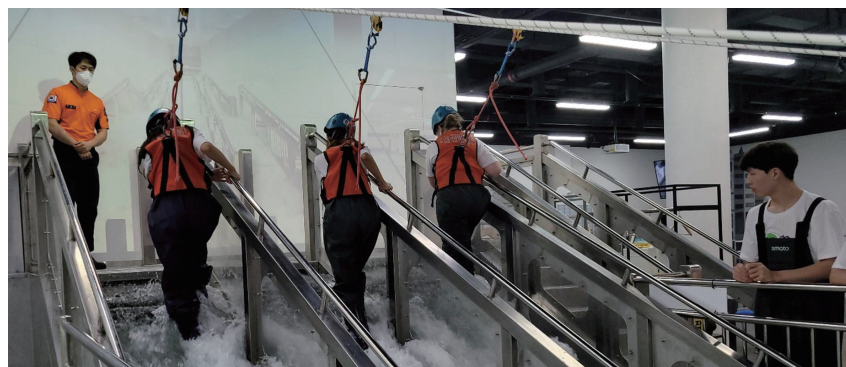
**Q 빗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언제 만들어졌나?**

2003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각 시도지사가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서울 광나루체험관이 2003년 3월, 그 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2008년 12월에 대구에, 2013년 3월 전북체험관 등이 차례로 개관하였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방뿐만 아니라 각 기관, 단체에서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소방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은 전국 각 광역단체별로 건립하되 대형은 100억원, 중형은 70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시도에서 부담하여 현재 13개의 체험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다. 빗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은 2단계 사업, 대형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62억원을 들여 2018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7월에 완공,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10월에 개관하였다.

**Q 이곳에 많은 분들의 열정과 애정이 녹아있다고 들었다?**

2017년부터 광주소방안전본부 내에 TF팀 3명을 구성하여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을 추진



해 오다가 건축 설계 단계부터 건립 추진단을 5명으로 보강하였다. 2019년에는 광주 소방 내, 체험교육에 경험이 있고 희망하는 직원들을 8개 분야별로 3~4명씩 인력풀을 구성하여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여 최종 23개의 체험코스를 개발하였다. 확정된 콘텐츠를 체험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인 유치원 교사, 장학사, 산악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체험방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교안을 작성하였다.



2021년 7월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3에 문을 연 빗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7,860.09㎡ 건축면적 2,177.74㎡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곳은 8개의 체험 구역에서 23개에 달하는 체험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Q 빗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어떤 체험들을 만날 수 있나?**

이곳에서는 총 8개 체험구역에서 23개의 체험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 체험구역별로 20명 정원으로 70분씩 운영되며, 1일 5회 실시하고 있다. 지하에서는 어린이(키즈) 안전체험이 가능하다. 1층에서는 자연재난인 산악, 호우, 지진안전, 2층에서는 사회재난인 화재안전, 생활안전, 3층은 학생안전, 응급처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각 체험구역에서는 2개~4개의 체험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호우는 침수공간체험, 침수계단체험, 침수차량체험이 있고, 화재는 완강기, 각 상황별 신고방법,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Q 빗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호우안전체험을 특화한 이유가 있을까?**

기존의 체험관을 둘러보니 호우체험은 폭우와 거센 바람을 맞아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체험은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실제 상황처럼 연습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광주의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체험 콘텐츠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소방관의 경험상 게릴라성 폭우시 지하차도에 배수가 되지 않아 출동을 자주했고, 범람한 개천의 다리를 건너다 자동차와 함께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호우안전 체험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1 365세이프타운 2 종합안전 체험관 설해 체험관  
3 365세이프타운 4 종합안전 체험관 설해 체험관

**Q 최근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해졌다.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호우안전체험을 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다?**

2020년 7월 부산 지하철도 침수로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2022년에는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서 3명,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물이 차오르는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사고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오송 지하철도에서 침수된 차량 내에서 대피하지 못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체험관의 호우체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언론사에서 취재가 있었고, 2022년 여름 이후 호우체험은 2개월 전 예약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마감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잦은 사용으로 체험용 차량의 창문개폐장치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아예 부속품을 사두고 자체 정비하여 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호우체험에만 체험객 몰리는 것은 아니고 1층의 자연 재난 체험과 화재체험 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Q 호우안전체험에 참여한 체험객들의 반응은 어떤가?**

일부 체험객은 패닉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비명을 지르고, 허둥대거나 식은땀에 젖기도 한다. 실제로 침수공간대피에서는 수압이 걸린 문을 개방해 보면서 그런 상황에 갇혔을 때 얼마나 대피하기 힘든지, 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침수계단 대피시에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급류에서 느껴지는 수압을 견디며 넘어지지 않고 오르는 체

험을 하면서 대피방법을 체득하기도 한다. 침수차량대피에서는 차량이 물속에 잠기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잠기면 차문의 개방이 어려운지도, 차량 내로 물이 스며들 때 왜 침착하게 물이 차오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차문을 개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고마워했다. 아울러 유리창의 파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휴대용 유리창 파괴기구 구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Q 현재 대전에는 안전체험관이 없다. 만약 건립이 된다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가?**

먼저 다른 체험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답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의 사건사고 중 빈번한 사례를 추출하여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체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확정한다. 그런 다음 전시 체험시설에 대해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요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없는 체험공간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직원들의 편의공간 확보와 각종 장비보관 창고를 체험공간 내에 비치하도록 건축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공간만 덩그러니 만들어 나중엔 필요



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 번째로 주차공간을 비롯한 야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활용할 수 있는 야외공간이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체험공간을 추가로 구성하기도 용이하고, 체험객들의 휴식공간이나 포토존을 만들기도 좋다. 네 번째로 VR, AR 등 디지털 시설을 되도록 축소한다. 설치 및 업그레이드 시 고비용, 잦은 고장, 쉽게 식상해한다. 체험은 어쨌거나 아날로그여야만 한다. 자동차경주 게임을 잘한다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식당과 카페, 넓은 로비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를 바란다. 재난은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우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난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연한 체험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시설 변경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현실. 전국적인 상황을 본다면 전국 소방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이 13개소, 기타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80여개가 되는데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Q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에 맞닥뜨리면 패닉에 빠지게 된다. 아무런 생각도 행동도 못하고 그저 “얼음”상태가 된다. 그러나 몸이 반복적으로 익힌 동작들은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면 이때 가장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체험을 통해 위험을 예지하는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 마치 방어운전처럼 예상되는 사고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한 사회의 안전문화는 개개인이 안전에 대해 알고, 행동하고, 습관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다. 내가 안전하고 너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때 그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대전시  
안전정책과장  
백병일

# 대전시, 안전체험교육의 메카를 꿈꾸다!

안전에 대한 지식과 재난별 위기대처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건립하는 국민 안전체험관.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을 돕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는 국민안전체험관이 없다. 안전체험교육의 메카를 꿈꾸는 대전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Q 대전시에는 안전체험관이 없다. 그간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

국민안전체험관은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방안전교부세(국비)를 교부받아 건립한다. 지난 2016년 1단계(2017년~2021년) 공모 추진 당시, 대전에는 119시민체험센터로 불리는 소형 안전체험시설과 교통안전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전담하는 특수목적의 체험 시설인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어 선정되지 못했다.

재난유형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로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앞으로 2단계 공모사업(2024년~2028년)에 응모하여 대형 안전체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Q 안전체험관을 유치한다면 어떻게 지을 계획이신지 건립방향이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시정 철학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다. 설계 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대전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전시관, 다목적 활용 홀 등 공간의 최적화로 활용도를 높여 전 시민의 안전교육의 현장이면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장과 재난 약자 편의 환경, 매봉산을 일부 활용한 산악안전 체험코스 개발 등 설계 단계부터 체험 시설별 공간 배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기간과 사업비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특화해서 만들 계획인가?**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6대 안전체험 분야와 더불어 대전만의 특화된 체험테마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이태원사고와 같은 경사도에 따른 인파밀집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요령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밀집도 체험관을, 지하의 침수심이 일정 높이 이상이면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조차 어려운데, 출입문 내 외부의 수압차가 줄어들면 문이 열리는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실내 침수심 대피 체험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체험을 통해 초고층건물 화재 대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악사고 예방과 캠핑안전 등의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야외 체험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발생시 재난관련 기관(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교육센터도 설치하여 신속·정확한 상황전파 및 공유로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Q 대전은 과학의 도시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과학도시답게 과학과 안전체험 교육의 실질적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원의 첨단 기술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대전 국민안전체험시설에서 안전체험과 학습 진행이 가능하다.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문화예술

**용어 설명**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 음성·영상 및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

설계 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대전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전시관, 다목적 활용 홀 등 공간의 최적화로 활용도를 높여 전 시민의 안전교육의 현장이면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의전당, 한밭수목원 등과 연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갑천의 수상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보문산 레저 및 자연휴양관련 프로그램과 연결된 방문 패키지 운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Q 타시,도의 안전체험관 중에 벤치마킹하려는 곳이 있을까?**

2021년 건립한 광주 빛고을안전체험관은 우리 지역과 유사한 행정 여건을 가지고 있어 트렌디한 체험시설 구성현황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을 사전 견학하고 왔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주 목요일은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체험활동 운영하는 부분은 대전시가 눈여겨 볼만한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Q 체험관이 건립되면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지출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체험관은 공공 차원의 시설물로서 기본적인 성격상 수익을 남기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을 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부담은 없겠지만 초기 건설비와 운영비 등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은 있다. 하지만,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안전교육과 체험을 통해 사전 학습과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본래 취지인 교통사고 감소효과,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한재난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존 체험관을 운영하였던 인력을 재배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과 경찰 등의 퇴직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운영비 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역의 안전을 가리키는 나침반

# 지역안전지수가 궁금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가리키는 나침반,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인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받은 등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할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 지역안전지수는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매년 12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http://www.mois.go.kr) ▶ 업무안내 ▶ 안전정책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www.ndmi.go.kr](http://www.ndmi.go.kr)
- 생활안전지도 [www.safemap.go.kr](http://www.safemap.go.kr) ▶ 생활안전지도 ▶ 지역안전지수 등급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해 특·광역시/도, 시/군/구 지역별로 확인 가능)

### 우리 지역이 받은 등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역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 숫자 특·광역시/도, 시/군/구 5개 비교 그룹 내에서 해당 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 (1등급일수록 안전)

1 > 2 > 3 > 4 > 5

## 한 눈에 살펴보는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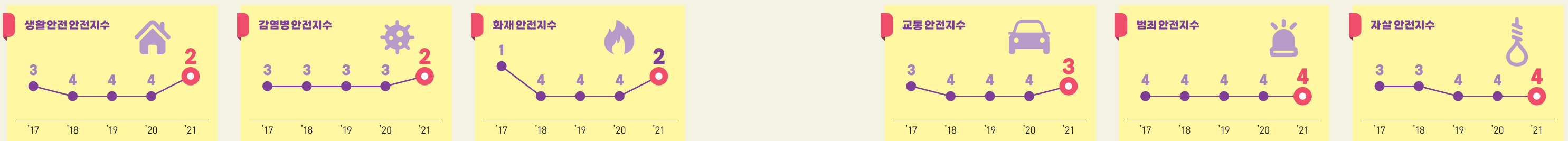
지역안전지수는 한 도시의 안전을 한 눈에 짚어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우리 지역의 안전 중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은 관심을 갖고 돌볼수록 튼튼해지는 만큼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대전시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2년 대전시 지역안전지수(2021년 통계 기준)



###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5개년(2017년~2020년) 추이



## 대전광역시 교통사고의 최신 변화와 중점 대응 과제

# 교통지역안전지수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과거의 교통 여건과 안전 의식이 향상되어 사망자수가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이제 사망자 수가 더 줄어들지 않는 정체기를 맞고 있다. 교통안전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원인분석은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준\_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제연구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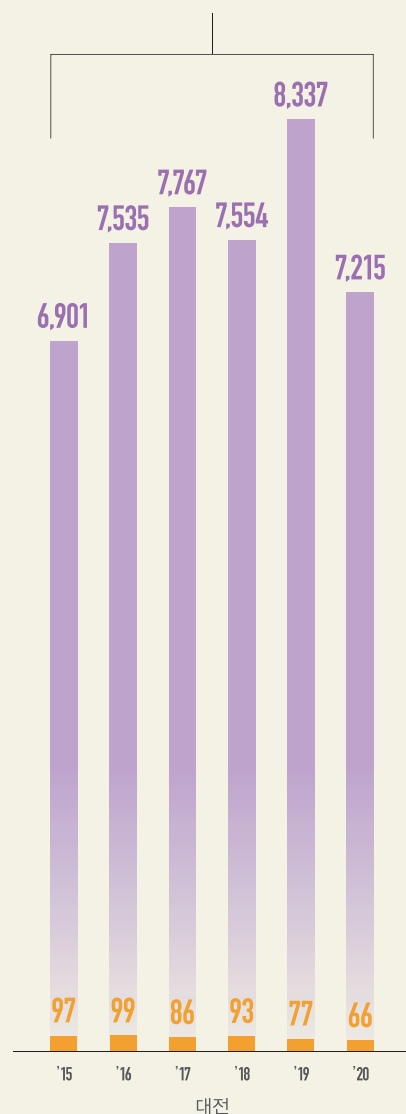


### 대전시 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사망자수

대전광역시의 차대차, 차대사람 사망자는 '17년~'1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차량단독 사망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생건수에 있어서도 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모두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발생건수  
■ 사망자수  
■ 사망자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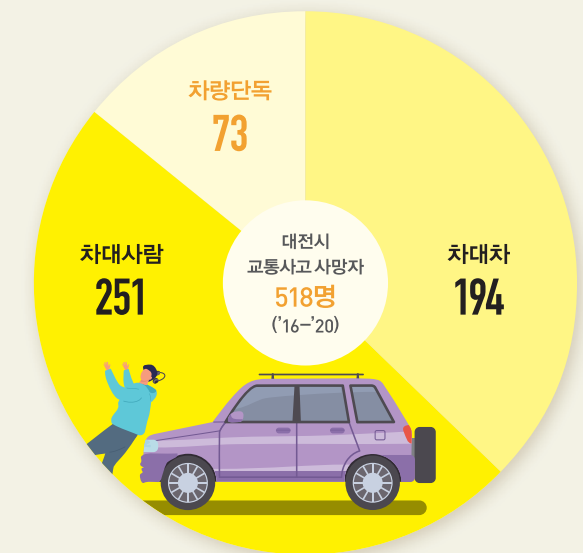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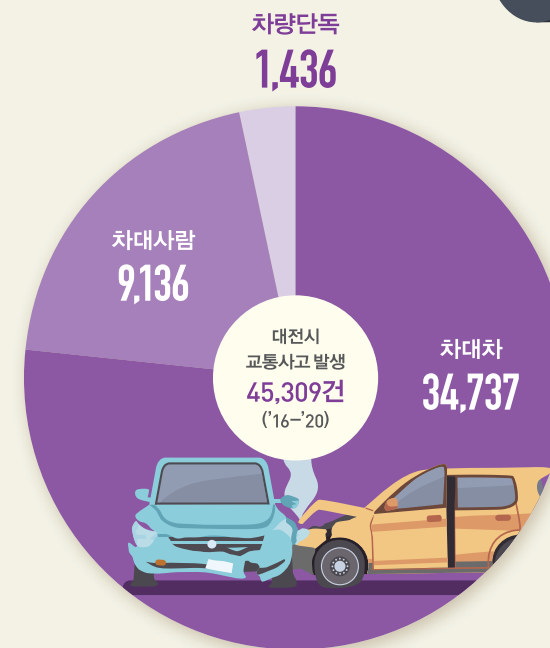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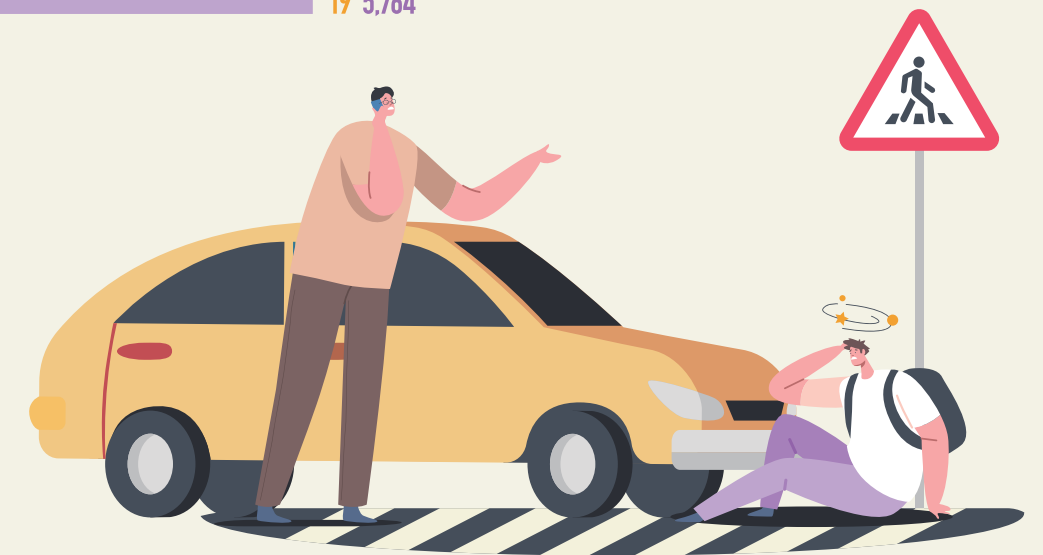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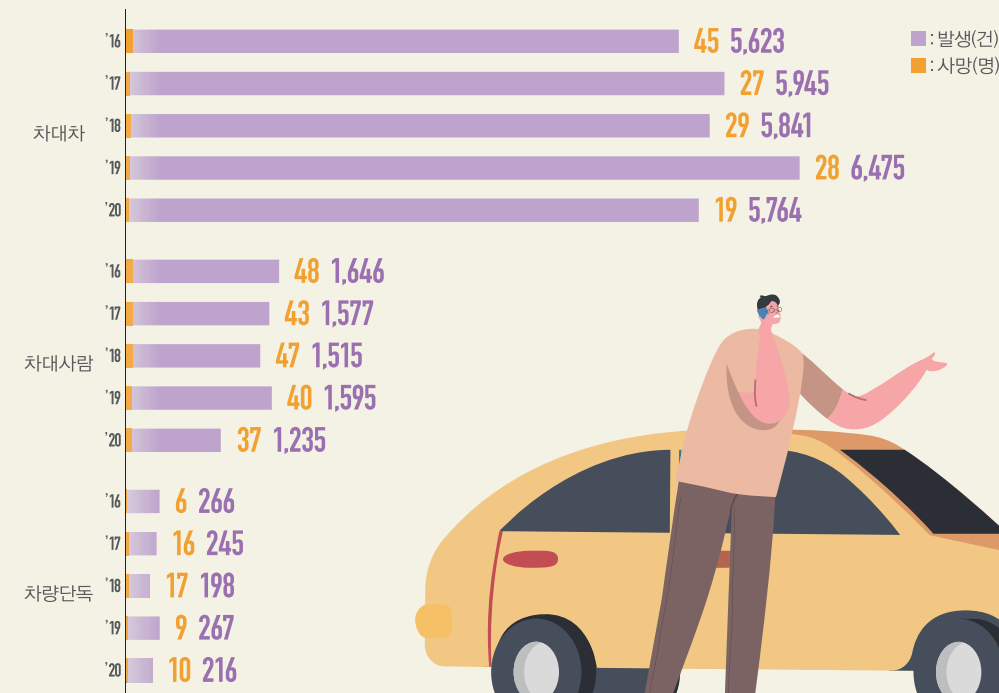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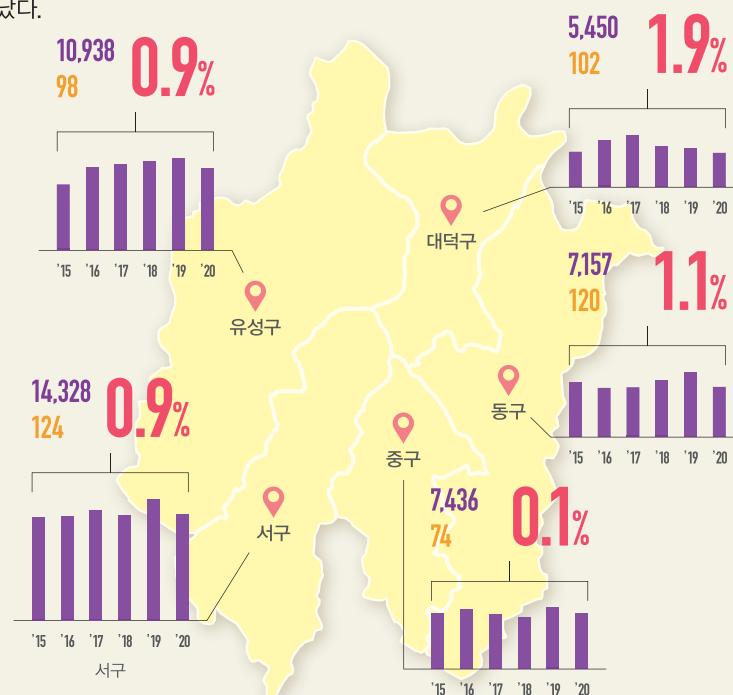
45,309건 518명 1.1%



이번 인포그래픽에서는 대전광역시의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수조사하고,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과 환경변화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대전광역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고, 배달문화의 정착으로 이륜자동차의 새벽 시간대 사망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고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동수단이 다양화 됨에 따라 PM(Personal Mobility: 개인교통수단)의 사고가 새롭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광역시의 연간 사고 발생 건수와 발생유형

대전광역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를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에 있다. 대전시 안에서는 대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성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사망자수는 약 감소세에 있지만, 사고 발생 건수는 약 7천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덕구(1.9%)와 동구(1.7%)는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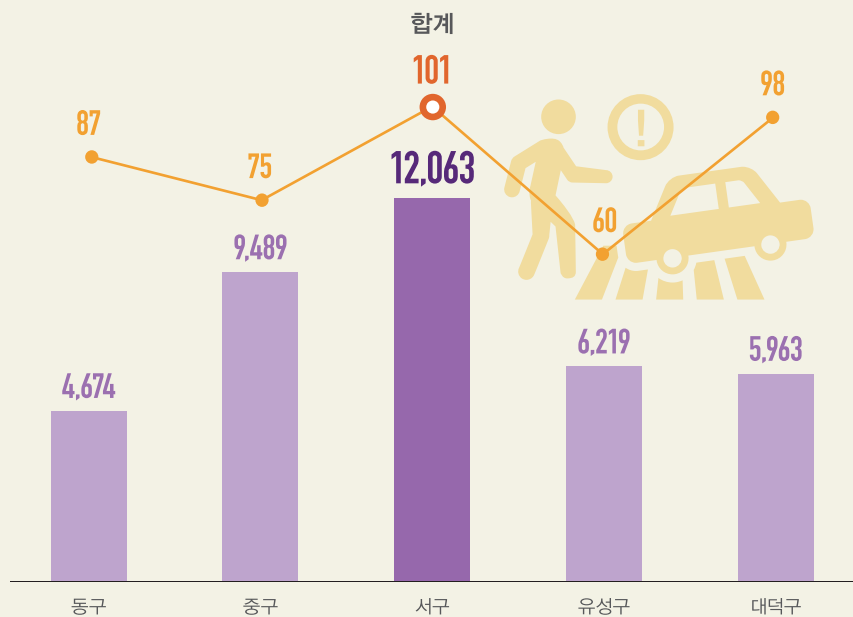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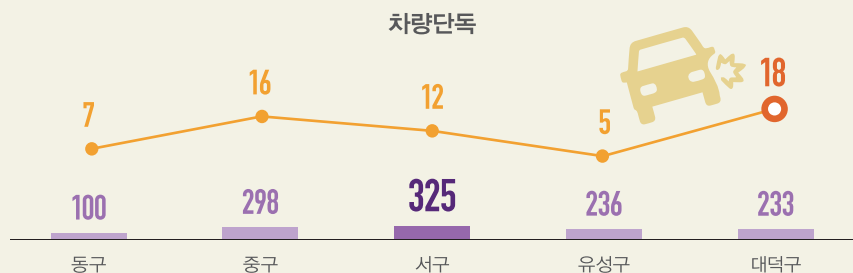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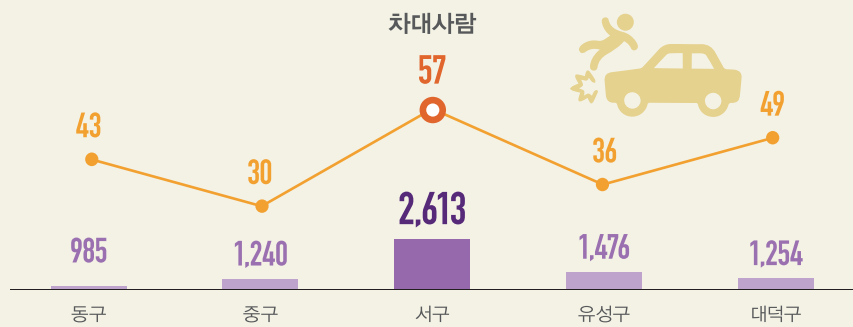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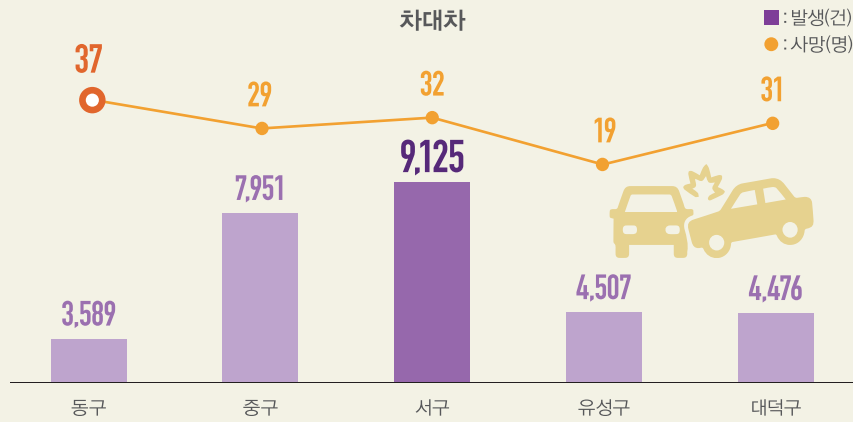


### 5개 구별 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사망자 및 발생건수

차대차 사망자수는 5개구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중구는 `20년 다소 증가하였다. 대덕구는 최근 5년간 차대차 발생건수에서 사망자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고, 다음으로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차대사람 사고는 최근 5년간 낮은 감소 폭을 보였으나, `20년에는 사망자수와 발생 건수가 다소 감소의 폭이 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교통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덕구의 경우 차대차 사고에 이어 차대사람 사고에서도 최근 5년간 발생건수 대비 사망비율이 높은 구로 나타났다.

차량단독 사고는 차대차와 차대사람 사고에 비해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16년~18년과 비교하면 `19년과 `20년에는 사망자 수가 현격히 감소하였다.



### 대전시 연령대별 사고유형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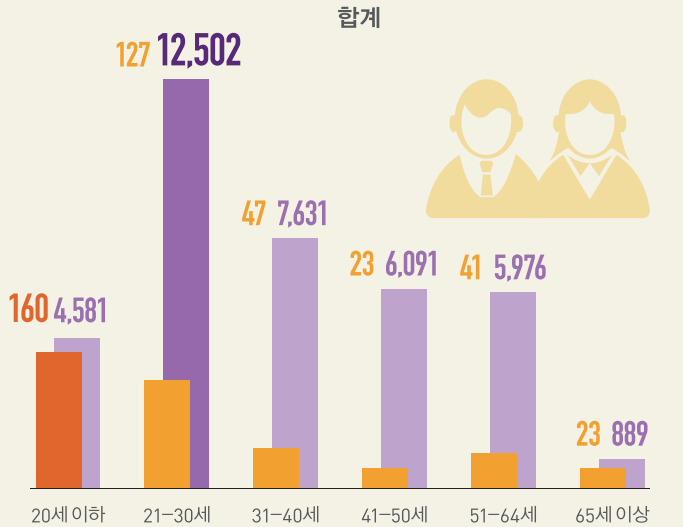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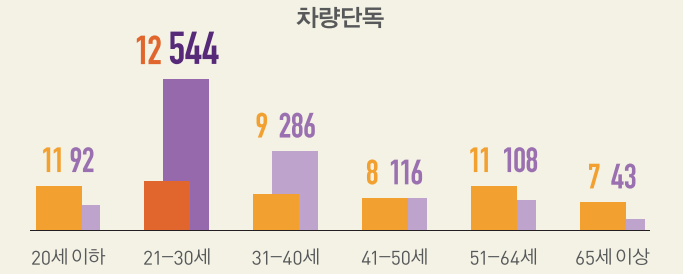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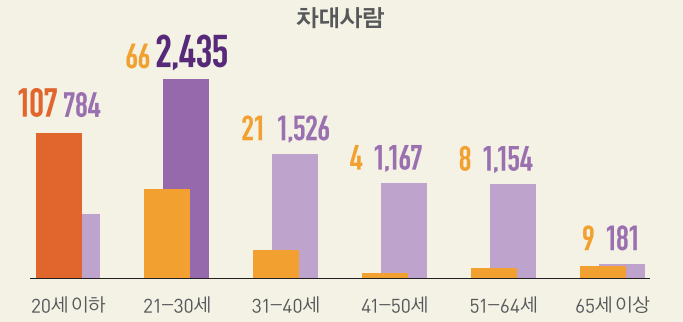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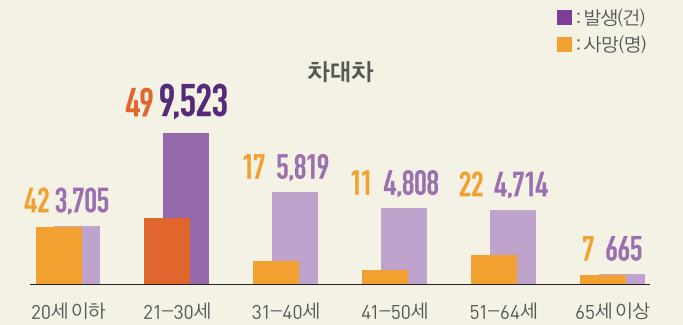
연령대별 차대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인구구성이 높은 만큼 고령자의 사고와 사망사고가 높았으며,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40~50대의 발생사고 빈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고령자(65세이상)와 미성년자(20세 이하)는 사고 발생 빈도가 다소 낮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비율(1.1)이 높아 교통사고에 취약한 약자층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건수를 선도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령대별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49.8%로 절반에 가까워 고령자 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1~64세도 30.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고령자(65세이상)의 사망 비율인데, 전체 784건의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사망자가 107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연령대별 차량단독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51~64세가 20.7%, 21~30세가 18.9% 순으로 나타났으며, 51~64세의 차량단독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지만,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세 이하가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사고 대비 사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사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세 이하의 차량단독사고의 경우 20세 이하가 운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륜자동차 또는 PM(Personal Mobility:개인교통수단, 전동킥보드 등)이 주요 수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안전장치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볼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혼합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구밀도와 시설 환경이 달라 획일적인 통제와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경상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단독사고의 경우 사고자가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평소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와 고령자의 사망 사고율이 높은 것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미성년자의 사고는 교육과 안전장비 착용의 계도가 필요하며, 고령자 역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는 PM에 대한 안전계획과 심야시간대의 이륜차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 또한 절실히 보인다.



### 참고 문헌

- 도로교통공단(2020), 『안전속도 5030구축방안』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2023.1.15), 지역별 교통사망사고 통계
- 국토교통부(2021), 『마을주민 보호구역 설치기준』

- 충청투데이(2019.10.24.), "충남도 노인보호구역 수 '전국 최다'"
- 국토교통부, 국가교통 통계누리(2023.1.15), 사망사고 통계



## 대전시, 중대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개최 '안전문화 정착 원년' 만들자

일시: 2023. 2. 10(금) 장소: 대전시청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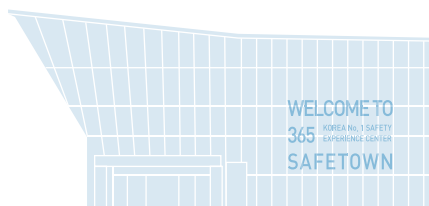
대전시는 시 소속 현업업무 및 위험업무 부서장 55명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지난해에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올해는 '안전 문화 정착' 원년을 삼아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교육은 중대 산업재해 주요 사례 및 관리대책,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의무 준수사항(도급 포함), 2023년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태백 365세이프타운 방문

일시: 2023. 2. 23(목) 장소: 태백 365 세이프타운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세계 최초 안전 체험 테마파크인 365세이프타운 방문을 통해 각종 재해 및 재난 상황을 가상 체험하고, 대전시에 특화된 프로그램 내용 발굴과 콘텐츠 업그레이드 방법, 안전에 관한 교육 트렌드 확인,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홍보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 대전시, 현업근로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일시: 2023. 3. 20(월) 장소: 대전시청 대강당



대전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시 소속 시설, 설비 담당 현업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직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기본 수칙, 재해사례를 통한 안전의식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대전시는 2023년을 '안전 문화 정착 원년'으로 정하고 안전보건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을 진단, 개선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대전시,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 화재 대책 점검회의 개최

일시: 2023. 3. 20(월) 장소: 대전시청 대회의실



대전시는 행정부시장, 관련 실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 화재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의 진압, 방제조치 등 대응 활동을 바탕으로 화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산업단지와 상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에 대한 화재 예방·수습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대전시, 대한민국 과학축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일시:** 2023. 4. 26(수) **장소:**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장



대전시는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장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전시를 포함한 안전관리 7개 유관기관에서 21명이 참여했으며,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교육 여부, 가스, 전기, 시설물 등 분야별 점검, 화재 등 사고 대비 구조·구급 차량 확보 여부 등 행사장 전반에 대한 안전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 광주 빚고을 안전체험관 방문

**일시:** 2023. 5. 11(목) **장소:** 광주 빚고을국민안전체험관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국민 안전 체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광역 단위의 우수한 체험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대전시 안전 체험관 프로그램 설계 도입 시 접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 빚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시와 도시안전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 체험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체험관의 운영현황(규모, 주요시설, 예산, 전담 부서 인력),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계획할 예정이다.

## 대전시, 2023년 상반기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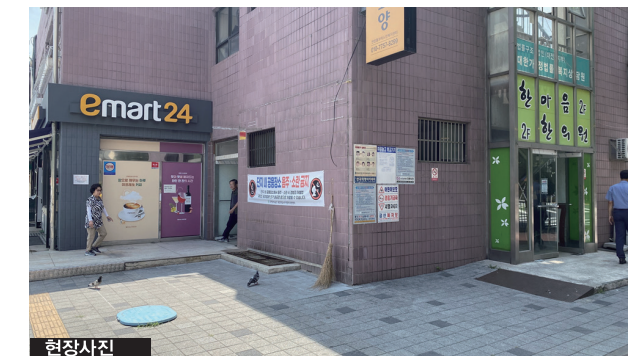
**일시:** 2023. 5. 30(화)  
**장소:** 대전시청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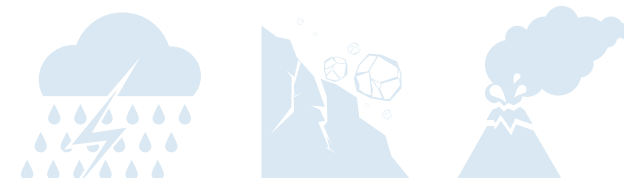
대전시는 시·구·공사 재난 안전 업무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재난 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재난관리 수습 부서 및 13개 협업 기능 주관부서 재난 업무 관리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위기관리 매뉴얼과 대응훈련의 이해, 재난심리 회복지원의 이해, 재난 대응 기구의 구성 및 재난 현장 수습 지원 절차순으로 진행됐다.

##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동구경찰서 환경개선 컨설팅

**일시:** 2023. 7. 3(월)  
**장소:** 대전 동구 판암동 248, 판암주공아파트4단지 상가 주변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동구 판암주공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질서한 공간점유와 쓰레기 투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문제의 대상지 공간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통해 영역성 측면의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적 감시를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전거 거치대 설치와 함께 도난방지 예방과 기계적 감시 효과 제고를 위해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는 주변에 추가 CCTV 설치를 제안하였다.





##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자문위원 위촉



일시: 2023. 7. 6(목)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1층 대회의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지역 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대전도시안전센터는 지역안전지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수	자문위원
교통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박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박사
범죄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임창호 교수
자살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정민 교수
	자살예방센터 정영순 팀장
화재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채진 교수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주호 교수
생활안전	원광대학교 조성 교수
	충남연구원 권영현 명예연구원
감염병	이화여자대학교 이명선 명예교수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신우리 박사

## 대전시, 자치구와 재난안전 현안사항 점검회의 개최

일시: 2023. 7. 7(금) 장소: 대전시청 영상회의실



대전시는 여름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구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대전시 안전 관련 부서장, 자치구 안전 총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사항, 자치구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재난 안전대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대전 0시축제 개최에 따른 인파 밀집 안전대책으로 T/F팀 운영, 사전 합동점검,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동구와 중구에서도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 대전시, 0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일시: 2023. 7. 26(수) 장소: 대전시청 대회의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 주재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및 민간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2023 대전 0시 축제'와 '내 인생의 한방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안을 심의했다. 관람객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질서유지 및 교통 대책, 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대전시는 논의된 내용과 보완 요청사항들을 축제 주관부서와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목격한  
우리에게 안전문화 확산을 심어주는 통찰

# ‘안전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의 부설연구조직인 대전 도시안전연구센터는 최근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책을 발간하였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시의 도시안전에 대해 체계적 연구와 관리로 ‘안전한 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신설된 연구조직이다. 다양한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발간된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시민의 안전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재, 교통, 범죄, 감염병, 생활안전, 자살, 산업안전, 보이스피싱, 테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이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통찰을, 자체에는 안전한 도시로 발전시키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책을 통해 대전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에 안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책은 원하는 누구나 대전세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 책을 원하는 분은 chaeyoon@dsi.re.kr로 문의하면 선착순 20명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과거의 테러와 범죄는 특정 대상을 겨냥하였지만, 점차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도시의 복잡화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대전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前)경찰청장 김창룡



‘불안(不安)’이란 마음이나 몸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늘어가는 요즘, 현대사회의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 없는 필요악입니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불안의 시대에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아울러 해법을 제시한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대전 시민들이 두고두고 새겨야 할 지침서가 아닐까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장 강성기



기획도서〈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화재, 교통, 범죄예방, 감염병, 생활안전, 산업안전, 자연재난, 폭력범죄, 보이스피싱, 테러, 자살 등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재난 및 안전의 핵심 이슈들을 다루며,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집대성된 본서는 대전(大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한 도시로 발전시키는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셴테드학회 회장 이동희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요인들은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위기, 생활위기,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대전의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요인들에 대한 소개와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의 안전관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이창길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국민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안전신고 생활화 안전신문고  
[www.safetyreport.go.kr](http://www.safetyreport.go.kr)



## 첫째 안전신문고란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  
도로·맨홀 파손, 도로구조·  
신호등·안내표지판 개선등

**취약시설**  
절개지, 노후 옹벽·축대,  
가건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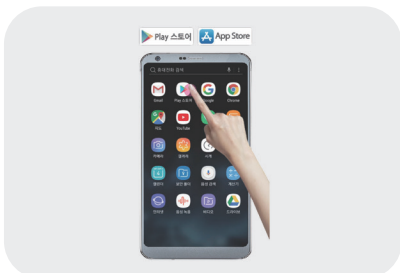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유원시설,  
복합건물 등

**공공시설**  
댐, 저수지, 상·하수도,  
가스·전기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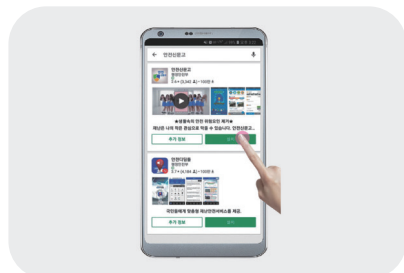
**기타 생활환경**  
학교폭력,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량식품 등

## 둘째 안전신문고 앱, 이렇게 설치하세요!

1 구글 Play 스토어 실행  
(아이폰은 앱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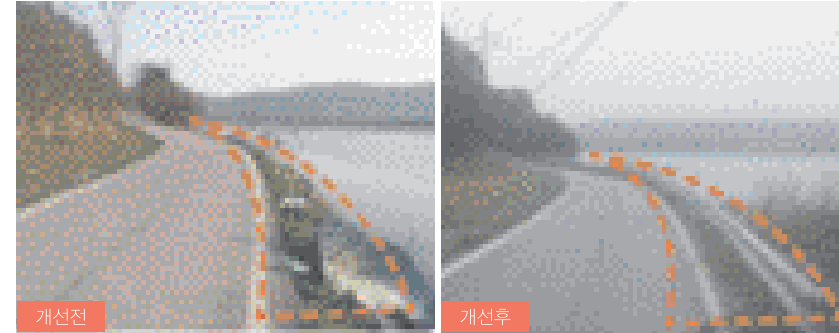
2 안전신문고 앱 검색 및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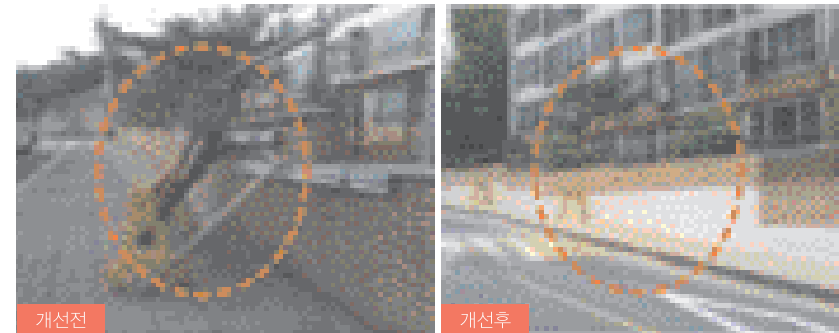
안전신문고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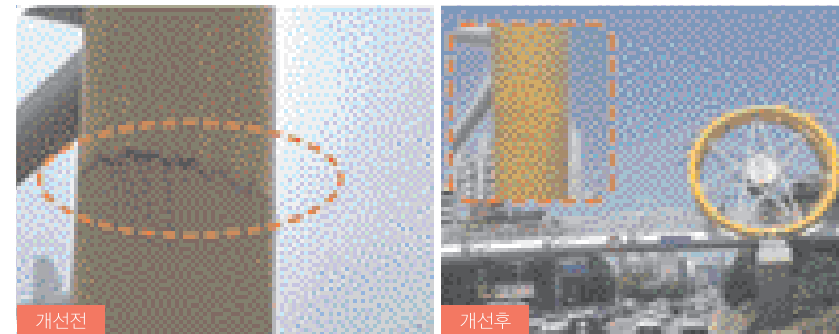
## 셋째 안전신고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구조참여 소방관이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하여 개선된 사례



해당관청에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담벼락을 보수한 사례



육교 주탑 내부 프레임 균열 및 부식 신고로 용접·보강한 사례



도로변 절개지 낙석지역 방호벽 설치사례

## 안전신문고, 이렇게 사용하세요!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포털)

1 안전신문고 실행



2 위험요인 촬영·첨부 -  
신고대상 위치 입력



3 신고내용 작성·제출-접수





http://daejeonsafe.co.kr/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도시! 바로 대전!



# 제7회 SAFE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2023. 9. 22.(금) ~ 9. 23.(토)

엑스포시민광장 일원



## 관람마당

- 특별한 안전문화 공연
- 돛자리 재난영화제
- 안전생활 그림 & 사진 전시

## 체험마당

- 화재대피, 재난대응 체험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 음주운전 예방, 호신술 배우기

## 어울림마당

-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 페이스페인팅, 생존배낭 만들기
- 안전체험 참여 이벤트